

# 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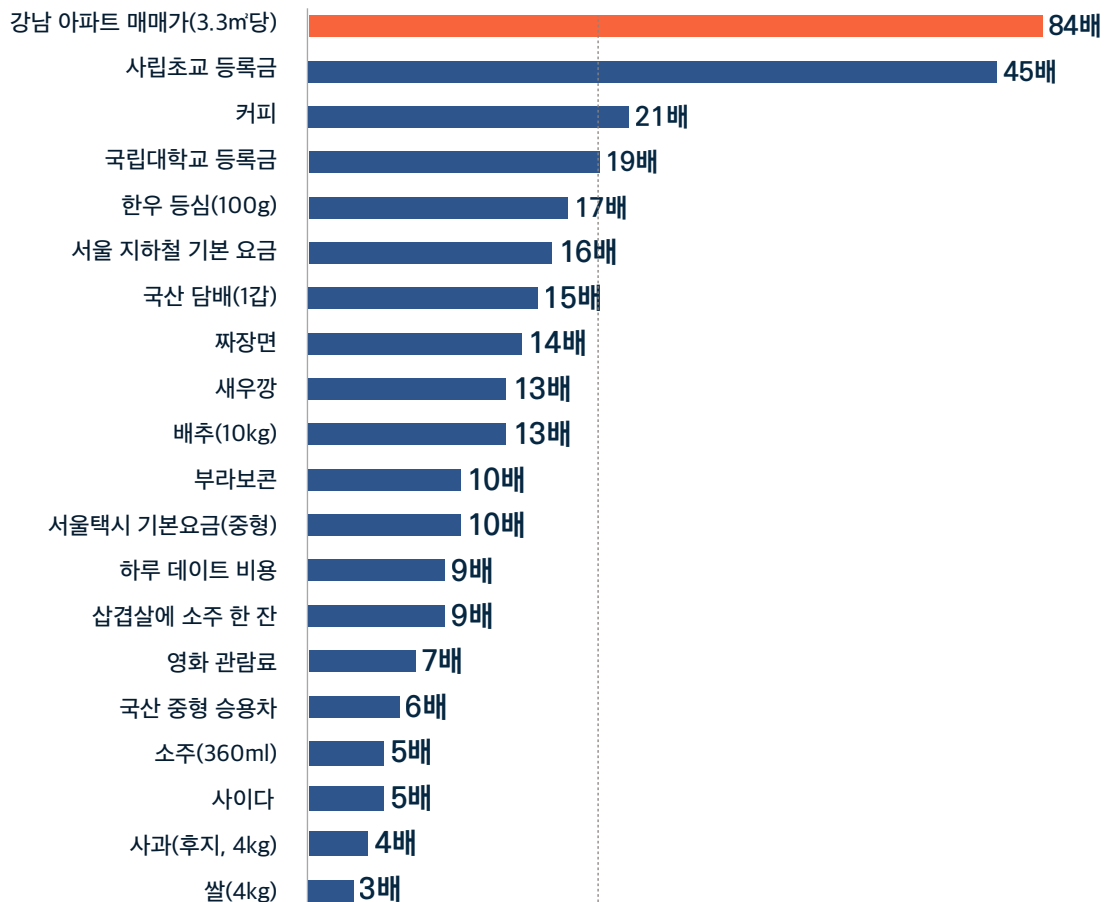
## 40년간 국내 주요 물품/서비스 가격 변화

### ● 40년간 모든 물품/서비스 중 ‘강남 아파트’가 84배로 가장 많이 올라

- 1990년~2020년까지 40년 간 강남 아파트 매매값(평당)이 77만 원에서 6,468만 원으로 84배 상승했는데, 이는 국내 모든 물품/서비스 중 가장 많이 오른 금액임(명목 가격 기준).
- 40년 간 국민 1인당 GDP(달러 기준)는 19배 정도 상승했는데 강남 아파트는 GDP 상승률을 크게 앞지른 것임
- 40년 간 대부분의 물품/서비스 가격 상승률이 GDP 상승률보다 낮아, 전반적인 실제 물가는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(실제 한국의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41,000달러로 사상 처음 일본의 40,800달러를 추월함)
- 1인당 GDP(달러기준) 상승률을 상회하는 것은 아파트 외에 교육비, 커피 정도임

[그림] 40년간 물품/서비스 가격 변화

(배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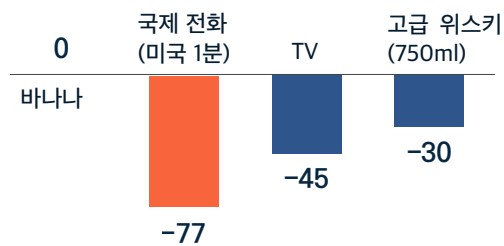
1인당 GDP : 19배 상승(달러 기준)

\*자료 출처 :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, '국내 주요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추세 분석 : 1980~2020', 2020.03.29.

## ● 반대로 국제전화, TV 가격은 오히려 떨어짐

- 대체재의 대중화로 국제전화 요금은 40년 동안 무려 77% 하락함
- 또한 기술의 진보와 생산성 증가로 TV의 명목 가격은 45%하락함
- 바나나 실컷 먹어보는게 소원일 때가 있었는데 바나나 가격의 40년 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물가 인상을 고려하면 바나나 가격은 매우 큰 폭으로 하락한 셈임

[그림] 40년간 가격이 동일하거나 하락한 물품/서비스 하락률 (%)



\*자료 출처 :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, '국내 주요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추세 분석 : 1980~2020', 2020.03.29.